

외환위기 이후의 서울의 산업경제 I

외환위기 이후 7년, 어제와 오늘

○ 1997년 외환위기의 명암

- 지난 1994~1996년 호황기를 거친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금융위기와 그간 경제전반에 누적되어온 경직성의 문제가 일시에 폭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함.
- 1998년 IMF 관리체제와 국내외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압력에 반응하면서 경제시스템 전반이 고강도의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대외적 개방성 증대, 산업의 유연성 증대, 대량실업을 동반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함.
- 2001년 8월 IMF 차입금의 전액 상환을 계기로, 이른바 IMF 체제를 벗어나게 되고, 경제적 안정과 활기를 되찾았지만, 외환위기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준 점을 부정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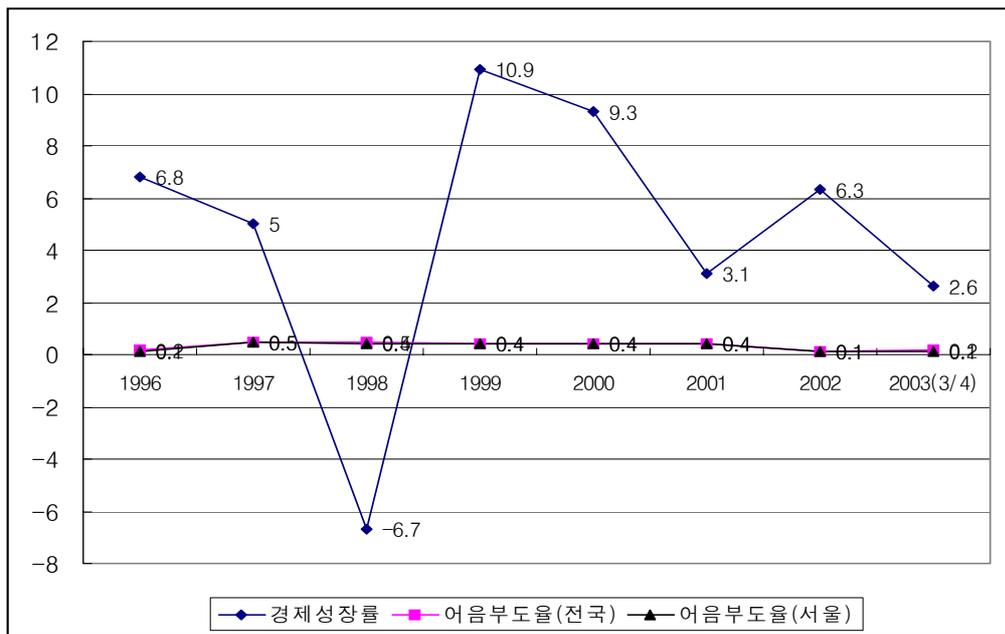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서울의 산업경제는?

- 외환위기에 따르는 국가경제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여 서울경제 역시 97년 이후 심각한 위기와 사회경제상의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측면에서 외환위기가 초래된 지 7년여가 지난 현재, 서울의 산업경제상의 변화를 여러 지표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의 현실 속에서 경제의 재활성화라는 정책과제에 직면하여 과거를 성찰함으로써 미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의의를 가짐.
- 본고에서 주요 산업경제 지표를 통해 지난 1996년~2002(3)년간 서울의 산업경제에 변화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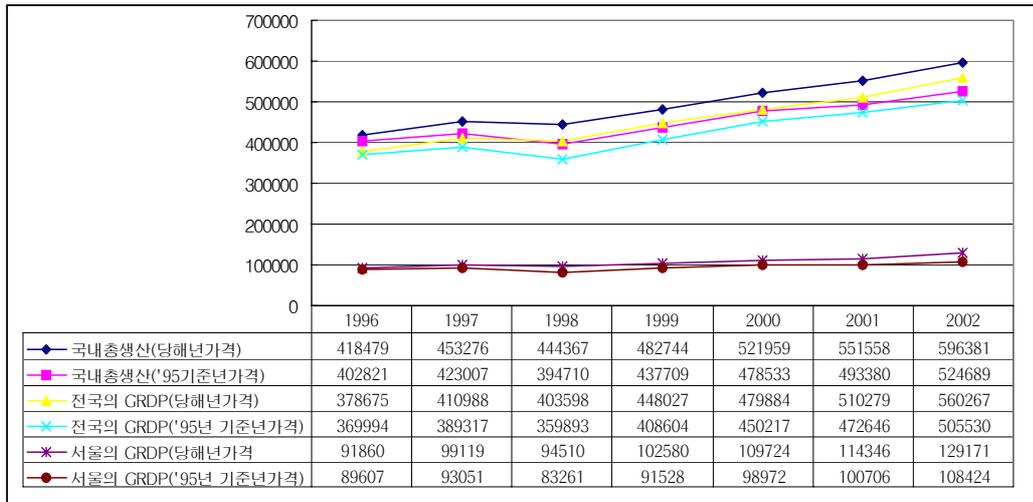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본 서울 산업경제의 변화양상

○ 국가경제 전반의 변화

- 서울의 산업경제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1997년을 전후하여 2002년까지 국가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거시적 흐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일정기간 경제규모의 실질적인 증가정도를 나타내는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냄. 즉 성장률은 96년 6.8%에서 98년 -6.7%로 급락한 이후, '00년 9.3%의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2002년을 제외하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임.



[그림 1] 한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추이(1996-2003)



[그림 2] 전국 및 서울의 생산 변화추이(단위 : 10억원)

- 국내총생산(GDP)의 경우에도, 96년 약 403조원(95년 기준년가격)에서 98년 약 395조원으로 큰 폭의 감소를 겪은 뒤, '00년 약 479조원의 큰 증가를 보인 이후 '00년~'02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함. 전체적으로 96~'02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6.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 96년 현재 전국의 24%인 90조원(95년 기준년 가격)의 서울 지역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변화추세와 마찬가지로 98년 상당한 감소를 거쳐 '00년 99조원(전국의 21.9%), '02년 108조원(전국의 21.4%)으로 증가함.
- 그러나, 서울의 산업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3.4%, 그리고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21.4%로 계속 하락하는 등 서울의 산업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서울 지역은 급성장을 보이는 서비스업 부문과 달리 광공업의 경우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 출하·재고 등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양상을 나타냄.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광공업 생산지표는 전국과 비교하여 200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표 1] 전국 및 서울의 광공업 주요 생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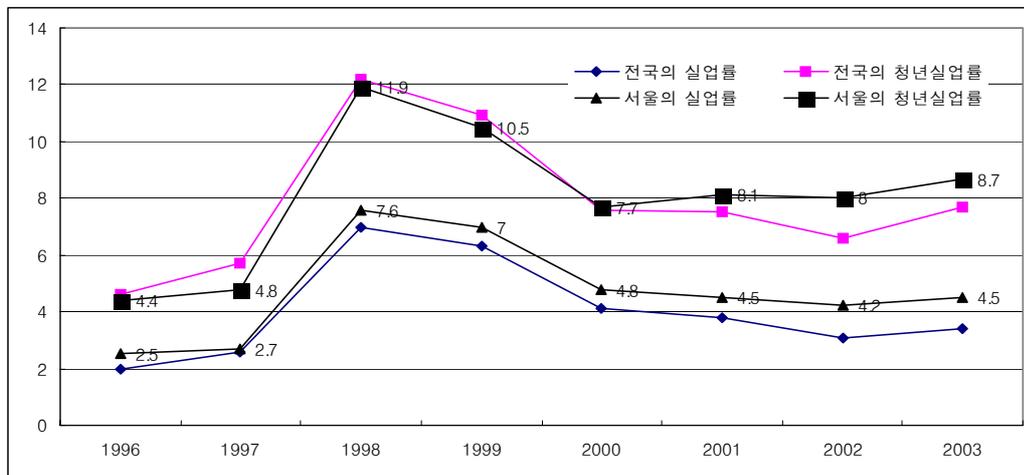
구분	지역	1996	1998	2000	2002	2003
산업생산지수 (2000=100)	전국	70.2	68.4	100.0	108.4	114.0
	서울	91.8	68.7	100.0	100.9	101.8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2000=100)	전국	70.6	68.3	100.0	109.0	113.6
	서울	85.3	65.6	100.0	103.3	104.1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2000=100)	전국	105.2	91.3	100.0	104.5	110.5
	서울	115.9	94.2	100.0	97.8	132.8

○ 고용여건의 변화와 실업

-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96년 약 2천1백3십만명에서 '03년 약 2천2백9십만명으로, 취업자 또한 2천9십만명에서 2천2백만명으로 약간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동기간 4십4만명에서 7십8만명으로 1.8배의 증가를 보여, 2003년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3.4%, 그리고 청년실업률(15-29세)은 2.3배에 해당하는 8.7%에 달하고 있음.
- 특히, 98년에는 각각 7.6%, 11.9%로 최고조에 달해 외환위기가 초래한 고용상의 영향이 심대했음.
- 서울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인구는 96년 전국의 23.2%인 4백9십5만명에서 '03년 21.7%인 4백9십8만명으로 정체를 보임. 그러나 취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4백8십3만명에서 4백7십5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실업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임.
- 이러한 결과로 서울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96년 2.5%, 4.4%에서 '03년 4.4%, 8.7%로 급증하게 되어, 이것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됨.

[표 2] 전국 및 서울의 고용여건

지역	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3
전국	경제활동인구(천명)	21,288	21,428	22,069	22,877	22,916
	취업자(천명)	20,853	19,938	21,156	22,169	22,139
	실업자(천명)	435	1,490	913	708	777
서울	경제활동인구(천명)	4,952	4,783	4,904	4,992	4,977
	취업자(천명)	4,830	4,418	4,668	4,783	4,753
	실업자(천명)	122	365	236	209	224



[그림 3] 전국 및 서울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1996-2003)

○ 서울경제의 산업규모와 구조의 변화추이

- 서울시의 총사업체는 96년 7십만여개에서 2002년 7십3만5천여개로 3만5천개가 증가한 반면, 일자리는 4백만개에서 3백8십만개로 오히려 2십만개가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고용사정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98년에는 사업체는 66만개, 일자리는 33만7천개로, 사업체의 경우 4만여개가, 일자리는 무려 6만3천여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앞서 언급된 높은 실업 및 청년실업율은 이와 같은 산업규모의 지속적인 축소에서 비롯된 것임.

- 산업구조적으로 볼 때, 제조업은 사업체 기준 96년 전산업의 11.3%에서 2002년 10.1%로 상당한 감소를 보였으며, 고용자의 경우에도 96년 20.0%에서 2002년 15.0%로 감소함.
- 반면, 서비스업(도매업~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96년 86.2%에서 2002년 87.3%로 다소 증가하였고, 종사자의 경우에도 96년 68.6%에서 79.2%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운수업~개인서비스업)의 경우, 그 증가추세는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서비스업 영역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96년 비해 2002년 산업적 비중이 2.8%에서 4.3%로 증가하였고,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6.8%에서 11.5%로 증가하였음. 이외에 부동산임대업, 통신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비중이 사업체와 종사자수 모두 증가추세를 보임.

[표 3] 전국 및 서울시 업종별 비중 추이변화(1996-2002년)

업종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서울시		전국	
	업체	종사자	업체	종사자												
농업 및 임업	0.0	0.0	0.1	0.2	0.0	0.0	0.1	0.2	0.0	0.0	0.1	0.2	0.0	0.0	0.1	0.2
어업	0.0	0.1	0.0	0.3	0.0	0.0	0.0	0.3	0.0	0.0	0.0	0.2	0.0	0.0	0.0	0.1
광업	0.0	0.1	0.1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11.3	20.0	11.1	26.8	10.0	17.2	10.0	24.1	10.1	15.9	10.4	24.5	10.1	15.0	10.7	23.3
전기, 가스 및 수도업	0.0	0.2	0.0	0.3	0.0	0.3	0.0	0.4	0.0	0.3	0.0	0.4	0.0	0.3	0.0	0.4
건설업	2.5	11.1	2.5	7.5	2.3	8.6	2.3	5.7	2.2	6.6	2.2	4.7	2.6	5.5	2.5	4.8
도매 및 소매업	35.1	20.6	33.1	17.5	34.6	21.9	31.8	18.2	33.1	22.8	30.4	18.4	31.2	21.2	28.7	17.9
숙박 및 음식점업	16.4	8.4	19.8	9.9	16.7	9.0	20.8	10.8	16.2	10.2	20.2	11.5	16.6	10.3	20.3	11.9
운수업	10.1	6.2	7.4	5.4	10.2	6.5	7.6	5.6	11.2	6.5	8.8	5.6	12.2	6.8	9.9	5.9
통신업	0.1	0.7	0.2	0.7	0.2	1.0	0.2	0.9	0.3	1.1	0.3	1.0	0.3	1.3	0.3	1.0
금융 및 보험업	1.2	7.1	1.3	5.6	1.3	6.6	1.3	5.3	1.2	5.6	1.2	4.5	1.2	6.0	1.2	4.3
부동산 및 임대업	3.9	2.7	3.2	2.1	4.1	3.2	3.3	2.5	4.0	3.1	3.2	2.4	4.2	3.1	3.3	2.5
사업서비스업	2.8	6.8	1.9	3.9	3.1	7.5	2.0	4.2	3.9	8.9	2.3	4.6	4.3	11.5	2.5	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2	2.9	0.5	4.2	0.2	3.4	0.5	4.7	0.2	2.8	0.4	3.8	0.2	2.8	0.4	3.4
교육서비스업	2.9	4.5	3.5	5.8	2.8	4.8	3.4	6.3	2.8	5.5	3.4	6.8	2.9	5.7	3.6	7.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	2.7	1.8	2.8	2.0	3.3	2.1	3.4	2.1	3.5	2.2	3.6	2.1	3.6	2.1	3.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3.2	1.9	3.2	1.8	3.5	2.2	3.6	2.0	3.9	2.6	4.0	2.3	3.6	2.4	3.8	2.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4	4.2	10.3	5.2	8.9	4.4	11.0	5.3	8.8	4.7	10.9	5.4	8.7	4.5	10.7	5.3
도매~개인서비스업 소계	86.2	68.6	86.2	64.7	87.7	73.9	87.5	69.2	87.6	77.1	87.2	69.9	87.3	79.2	86.7	71.3
운수업~개인서비스업 소계	34.6	39.6	33.3	37.4	36.4	43.2	34.9	40.2	38.3	44.1	36.6	40.1	39.5	47.7	37.7	41.5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이러한 결과, 현재 서울시의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경제의 지식기반화가 전개되고 있음. 특히 지식기반제조업에 비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현황

구분	사업체				종사자			
	1996	1998	2000	2002	1996	1998	2000	2002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	0.5	0.4	0.5	0.5	2.6	2.3	2.8	2.4
서울시 지식기반서비스업	11.2	11.8	12.4	13.0	24.6	26.6	26.9	30.4
서울시 지식기반산업 소계	11.7	12.1	12.9	13.6	27.2	28.9	29.7	32.7
서울시 총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지식기반제조업: 의약품,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항공기 제조업. 2. 지식기반서비스업 :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자료 : 서울시,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물론, 이러한 변화를 외환위기에 의한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는 바, 외환위기로 인한 영향 외에 이미 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서울경제의 서비스산업화 및 지식기반화 추세에 심화로 이해할 수 있음.

○ 서울의 혁신역량

- 최근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경쟁력과 경제성장에서 지역의 혁신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 경우에 지역별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혁신의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밀도(R&D density)와 혁신의 산출요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특허)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연구개발밀도: 연구개발비/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조직으로 구분됨.

- 연구개발밀도는 외환위기 직후, 연구개발조직의 경우 약간의 증가가 있었으나, 연구개발투자나 연구개발인력 등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 외환위기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98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표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연구개발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경우에도 98년 급감 이후, 다시 모든 지표가 큰 상승을 보여 연구개발역량이 정상궤도로 접어들고 있음. 다만, 연구개발비의 경우 '00년 급상승 이후, '02년 다시 조정국면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이러한 변화추세는 민간기업의 투자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음. 즉, 98년 외환위기 동안 유보되었던 투자가 2000년 이후 매우 활발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실제 서울의 경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는 98년에서 2000년 사이 2.5배로 급증하였음.

[표 5] 서울의 연구개발 주요 지표(혁신의 투입요소)

구분	지역	1996	1998	2000	2002
연구개발비 (백만원)	서울	2,888,486	2,278,685	4,534,141	3,899,657
	공공	220,655	232,911	247,360	452,594
	대학	379,986	521,627	469,669	597,809
	기업	2,287,845	1,524,147	3,817,112	2,849,253
	전국	10,878,051	11,336,617	13,848,501	17,325,082
	공공	1,895,618	2,099,470	2,031,981	2,552,632
	대학	1,018,882	1,265,074	1,561,865	1,797,096
	기업	7,963,611	7,972,073	10,254,655	12,975,354
연구개발인력 (명)	서울	55,381	46,993	77,647	80,022
	전국	202,347	199,191	237,232	279,806
연구개발조직 (개)	서울	820	932	1,771	2,729
	전국	3,317	3,339	5,227	7,554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 한편, 지식재산(혁신의 산출)의 경우 서울 지역은 96년 12만6천건(출원 기준)을 기록한 후, 98년 절반 수준인 6만2천건으로 급락하다 '0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02년 현재 11만1천건으로 96년 수준을 회복.
- 이와 같이, 앞의 연구개발밀도(혁신의 투입)의 변화추세와 달리,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에서 찾던 당시의 분위기, 이를 뒷받침하는 벤처특별법 제정이나 지식재산제도 개정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의 확립에 힘입은 바 큼.

[표 6] 서울의 지식재산 현황(혁신의 산출요소)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출원	등록	특허	출원	등록	특허	출원	등록	특허	출원	등록	특허
서울	125,666	31,166	3,923	62,070 (70,041)	61,695	14,106	116,357 (137,826)	46,515	8,620	111,261 (132,176)	55,831	11,746
전국	231,407	55,482	8,321	144,245 (156,802)	125,397	35,900	232,354 (263,961)	106,363	22,943	240,645 (269,721)	127,588	30,175

주: ()는 복수의장·다류 상표 기준임.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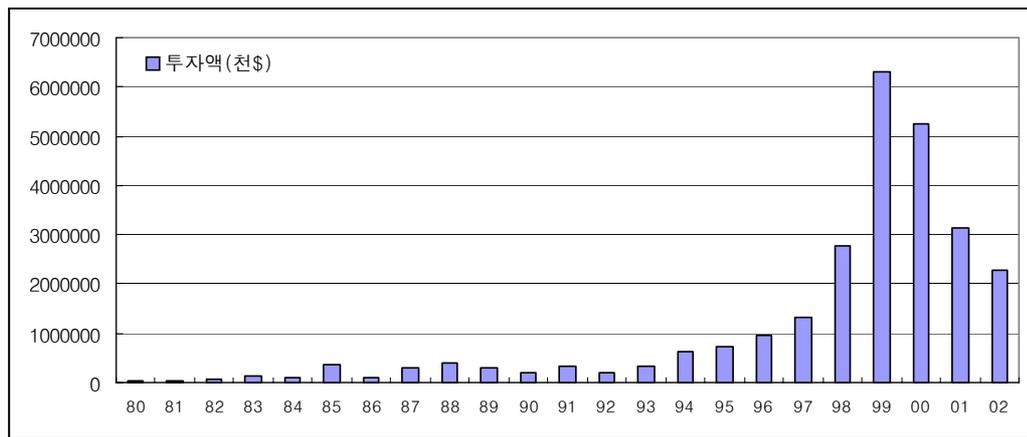
○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서울경제의 세계화

- 마지막으로 서울 산업경제의 변화를 주목하는데 있어서 언급되어야 할 영역은 최근의 경제세계화 추세속에서 나타나는 서울경제의 변화 양상임.
- 우선, 국가간 거래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경제의 위상은 국제수지를 통해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지난 96년 이후 국제수지상의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 96년 230억불(경상수지)에 달하던 무역적자는 98년 400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뒤, 이후 흑자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즉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된 대규모 흑자가 서비스 부문의 적자로 상쇄되는 양상을 나타냄.

[표 7] 한국의 국제수지 변화추이

구분	세부항목	1996	1998	2000	2002	2003
국제수지 (백만불)	경상수지	-23120.2	40371.2	12250.8	5393.9	12320.7
	서비스수지	-6179.4	1024.1	-2847.8	-8197.5	-7611.2
교역조건 (2000=100)	순상품교역조건지수	125.4	116.7	100.0	95.0	89.0
	소득교역조건지수	67.8	86.4	100.0	108.4	118.7

- 외국인투자의 경우 지난 65년 이래 2002년까지 서울지역에는 모두 2백6십6억불의 투자가 있었는데, 90년대 이전까지 투자는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의 투자는 90년대 이후의 것임(전체 투자의 91.8%).
- 외국인투자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대략 90년대 중반이며,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97년~99년까지 매년 두 배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점차 안정을 회복하던 시기인 2000년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4] 참조). 2000년에 16.8%, 2001년에 40.3%, 그리고 2002년에는 27.5%가 각각 하락함.



[그림 4] 외국인투자기업 현황(1980-2002)

요약 및 결론

- 서울의 산업경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경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음.
-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실업,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 이와 함께,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에서 외국인투자가 계속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가 요구됨.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투자의 제약요소가 되는 규제를 완화·재정비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bs66@sdi.re.kr